



心實愛世
攝信慈度

本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10. 15. 등록번호 라-2143호-월간-비매물)

東友會報

1987年(檀紀 4320年) 12月 31日 第 128號【1】

발행인 鄭 在 哲
편집인 申 益 炫
인쇄인 崔 在 旭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2-18
성화빌딩 12층
전화: 733-3993(代)
733-3991, 3992, 3993

우편대체: 012328-31-525669
은행지번호 7500891

무진년 새아침을 여는 民族東國



시카고로 가십니까? 40 YEARS ACROSS THE PACIFIC

논스톱으로 다녀오십시오.



서울에서 가장 빠르고 편안하게 시카고로 가고자 하는 분들께는 노스웨스트의 시카고 논스톱을 권해 드립니다. 매주 3회(월, 목, 토) 운항되는 시카고 논스톱편에는 도착후 산뜻한 기분으로 업무에 임하실 수 있도록 보다 넓직한 좌석, 최고급 와인 및 정갈한 음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카고 이외의 도시로 가실 분은 에어링크 서비스를 포함하여 미국내 200여 도시로 모셔드리는 노스웨스트 미국내 연결편을 이용하십시오. 미국으로의 빠르고 편안한 여행은 단연 노스웨스트입니다.



노스웨스트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예약은 가까운 여행사나 노스웨스트로 전화해 주십시오. ●서울 734-7800 ●샬럿 735-8500 ●조선포털 777-9786
●롯데호텔 778-8240/1 ●힐튼호텔 752-2394 ●반도호텔(부산) 44-2240, 462-3443



제16회 東國인의 밤 盛了

躍進東國 다짐하며 재회기쁨 나눠

- ◎ 東國의 기상으로 국내의 곳곳에서 활약해온 동문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 ◎ 우의와 화합을 다지는 제16회 東國인의 밤 큰산자가 5백여동문이 참여
- ◎ 석한 가운데 지난 12월18일 오후 6시30분 본회사무국이 위치한 성화
- ◎ 빌딩 특설홀(9층)에서 성황리에 베풀어져 發展東國에의 굳은 의지를 다
- ◎ 시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鄭在哲회장이 단 위 동문회 발전에 공헌해 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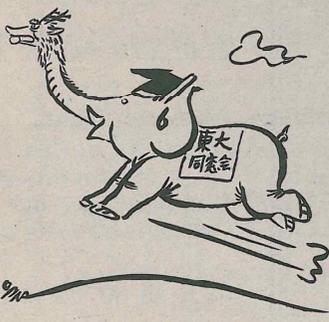
東國빛낸 동문에 공로패

이날 행사에는 鄭在哲회장의 인사말을 통해『올해는 全東國인에게 새로운 도약의 발판 마련으로 분주했던 한해』라고 전제하고『앞으로 다가올 榮光東國 1백주년을 내다보며 끊임없는 東國의 발전을위해 7만 동문의 가열찬 관심과 힘을 부각시킨다』고 말했다며 이어진 李智冠회장총장의 축사에 서는『지난해는 東國中興의 한해였던 만큼 국제화시대에 부응한 해외유수大學과의 자매결

연,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의 착공을 눈앞에 발진하는 東國의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동문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면서『학교와 동창회가 합심, 내일의 영광을 앞당기기 위한 동문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올해동안 東國의 금지로 會社성화에 적극기여해 온 동문 23명에게 공로패를 전달함으로써 그 공을 치하했으며 새해를 맞는 東國의 웅혼한 기상을 나타내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의 식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교내 근로요원에게 선물 증정, 교내제창으로 1부를 마치고 계속된 2부 여흥순서와 행운상 추첨등을 통해 더욱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관객기자·6·7면>

東友漫評 鄭雲耕



“戊辰龍飛”

88년도 신년 인사회 내달21일 개최 예정

88년도 본회 신년인사회가鄭在哲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李智冠회장총장등의 모교간부및 동문회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달21일 오후 6시30분부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있을

각급단위 送年행사 회 발전논의 및 우의다져

각급 단위동문회마다 송년모임이 활발히 마련되어 친목도모와 함께 會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忠南支部(회장=朴鍾允·59세 제·國際特殊金屬 株 代表理事)에서는 정기총회회 송년모임을 지난 10월 하오 6시 시내『대화장』에서 가졌다.

모두 60여명의 부부동문들이 자리를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 현직鍾允회장과 임원진의 유인을 비롯하여 1년간 본지부활동 소개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도 더욱 발전하는 지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慶北支部(회장=夏永泰·58법학·유신무역(株)代表理事)제10회 동국인의 밤이 지난12월29일 하오6시30분 시내 수성못앞, 『늘봄 공원』에서 동문 부부동문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 夏永泰회장은 경북지부 동문간의 우의와 각지부의 발전에 힘써온 대학교수 동문회등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감사패 증정으로그 謝意를 표했다. 이어 장기지원과 행운권추첨등으로 한층 분위기를 높이는 연회순서에서 서로의 우의와 다지기도 하였다.

忠北支部(회장=崔鍾泰·61법

東國을 아십니까?

「알고서 사랑하고 사랑하므로서 안다」(知而愛, 愛而知)라는 옛말이 있듯이 東國愛는 동문여러분의母校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솟아납니다. 本報에서는 이번 호부터 동문으로서 꼭 알아두어야 할 母校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면서 참여하는 東國人像의 정립을 꾀해보고자 합니다.



<1>校標

모교 교표는 본교에서 만들어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法輪』의 한복판에『東大』를 아보새긴 것이다.法輪의『法』은 부처님의 생과 진체를 뜻하며, 『輪』은 진리의 원만성과 진취성을 뜻한다. 따라서法輪이란 부처님의 원만한 진리(法)가

공간과 시간에 주어진 없이 흘러서 중생을 濟度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東國大學校로부터 이루어진다는 큰 뜻을 나타내었다.

검쳐있는 세개의 원은『三寶』를 뜻하는데 삼보는 거룩한 부처님(佛)과 부처님의 교설(法)과 四部大衆의 화합체인 僧伽를 말한다.

에워싸고 있는 네원은『四聖諦』(일체의 괴로움,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이,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를 뜻한다.

여덟개의 불꽃바퀴살은『八正道』(正見, 正想, 正語, 正業, 正命, 正精進, 正念, 正定)를 상징한다.

예정이다.

무진년 새해를 맞아 본회및 모교중흥의 기반을 새로이 다지는 계기가 될과 아울러신년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이 폭넓게 교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각 동문회보 발간 행대원·정의과등

단위동문들간의 교고 역할을 해주고있는 단위동문회보의 발행이 활성화되고 있어 동창회의 발전에 활력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일자로 행정대학원동문회의 회보인 『東行同門會報 제3호』가 지난 1일자로 정의과동문회에서 『東政會報 제2

호』가 각각 발행된 이래 사회화동문회의 회보발간도 추진중에 있는데 會내부의 각종 소식과 아울러 기술별 탐방등 자기자기한 내용으로 꾸며져있다.

東大新聞『同인의 밤』 지난10일모교다향관서

母校 東大新聞社 동인지주최(회장 李炳基모교연구과교수) 주최『東大新聞 同인의 밤』이 지난10일 오후6시30분 모교다향관 교수식당에서 있었다.

李희장은 『民族私學 東國의 역사를 생생히 전달, 기록하는 중대한 사명으로 40여년간을학교와 함께해온 대한언론의 선두주자로서의 위치를 확립해나가고있음을 의미하여 會社한동편지터번과 함께 추축하고 싶다는 앞으로 더욱 바탐으로 대외문화창달에 매진해줄것을 당부했다는 뒤에 마련된 여흥순서를통해 선후배간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기도했다.

『백상체육대사』수상 金光善 등문

金光善(37·체교)동문이 지난 27일안국보사시백상제단이 제정한 백상체육대사 투기경기부문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아마복싱 플라임의 간판스타로 부촉받은 그는 금동문은 함양공고 1년때부터 복싱에입문, 국가대표생활 6년동안 각종 국제무대에서 금메달 6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단위동문회 創立 잇달아

친목과 정진의 새지로

최근 각급 단위동문회의 조직이 속속 결성, 친목회를 갖 고있다.

지난 10월『ROTC 동문회』를 필두로『무역학과 동문회』가 조직된 데 이어 지난 5일에는『80 총동기회』가 모교 동국관 교수식당에서 최先榮교무처장및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同회원들은 운영위원회모임은 격월로 갖고 현안문제발견방향을 논의한 뒤 1회 이상의 총회를 통해 결과보고와 전체 會발전안을 토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민주동문회(회장=申庚

林·59연문·시인)의 창립대회가 지난 12일 오후 4시부터 母校 학림관소강당에서 열렸다.

사회민주화와 동국의 참관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초석이되고자하는 취지에서 발기, 창립된 이날 총회에서 申희장은 『민주동문회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찾아보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2일『정의과 62년 동문회』(회장=金北鎔)가 은성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기도 했으며 그밖에 『중권단 전체동문회』 및 『울산지회』 그리고 『한미은행동우회』 등도 창립준비위원단을 구성, 활발히추진중이었다.

本會 제14대 임원진 출범

지난 4월25일 母校 東國館에서 개최된 本會 제16차 定期 總會에서 제14대 총동창회장에 鄭在哲회장을 재추대하고, 副會長 17명, 監事 3명, 常務理事 80명, 理事 4백10명을 선인함으로써 本會와 母校發展을 위한 제14대 임원진이 출범하였다. 제14대 총동창회장으로 재추대된 鄭在哲 회장은 취임소감을 통해 『7만동문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창회를 건설하겠다』며 동창회관건립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모교 在鄉軍人會館 매입

母校는 재향군인회관 건물및 부지(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192~7)를 매입하여 校勢擴張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 이 건물및 부지의 매입은 母校 李智冠총장이 지난1일오전 11시 서울시강실에서 있는 廉晉錡시장과의 환담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루어진 것으로 캠퍼스 공간확충에 큰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대지는 2천4백54평이고 건물은 T자형 3층 6백평규모이다.

本會 事務局 이전

本會 事務局이 지난 2월7일 종로구 관훈동 성화빌딩 12층으로 이전했다. 동문상호간의 활발한 교류확대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업무확대로 종로2가 성화빌딩(구 종로예시장) 12층에 건립 1백평으로 이전한 사무국에는 會議室과 會報編輯室등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本會는 사무국이전을 계기로 동창회관건립계획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교 海外자매결연 확대

모교는 지난2월 美國 UCLA와 자매결연을 체결함에 이어 지난7월에는 西獨 레겐스부르크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연구및 교육분야에서의 상호협조와 학생및 교수의 교류를 약속했다. 이로써 모교와의 자매교는 美國의 UCLA, EW大, 日本의 다이스오大, 고마자와大, 西獨의 레겐스부르크大를 6개교가 되었으며 美國의 뉴욕주립대학과의 자매결연도 교섭추진중에 있어 세계명문대학들과 함께 학문을 연구하는 東國이 되었다.

東國야구 올 2관왕차지

母校 야구부가 올 2관왕에 오르며 아마야구 최정상임을 확인했다. 母校 야구부는 지난 9월23일 87주제대학야구리그전에서 檀國大를 10대 8로 꺾고 우승을 차지해 지난6월 백호기 우승에 이어 올 2관왕을 차지했다. 또한 母校 페슬링경기 지난4월 회장기장내대회와 7월 건국대학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데 이어 축구부가 전국대학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하여 體育東國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1987 東國 10대 뉴스

本報 선정

모교 單科大 편제개편

86학년도부터 모교 法政大가 法政大와 社會科學大로, 慶州캠퍼스 法經大가 法政大와 商經大로 분리되고 藝術大와 醫科大가 신설된다. 또한 컴퓨터, 통신, 언론의 융합과 확산이 창출해가고 있는 정보사회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情報産業大學院이 신설되어 정보관리학과와 산업공학과를 설치한다. 이밖에 慶州캠퍼스에 생물학과와 의과과가 신설되어 母校는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단위 東友會 창립활발

급년들어 東國라이온스클럽, ROTC총동문회등 각종 단위東友會의 창립이 잇달아 동창회 발전과 7만東國人의 우의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 11월28일 東國라이온스클럽(회장=鄭在哲·52정치)이 창립된데 이어 11월29일에는 ROTC총동문회(회장=元啓燾·63영문)와 實務學科동창회(회장=李啓明·73부역)가, 12월5일에는 東國80학번동기회(발기위원장=황영남·84국교), 12월12일에는 민주동문회(회장=甲庚林·59영문)가 창립되었다.

本會 업무 電算化

本會 사무국에서는 동문 신상기록 건전화를 위하여 컴퓨터를 도입하여 7만 東國人의 주소및 직장, 졸업연도등의 자료를 입력했다. 이번에 도입한 컴퓨터는 모델명이 MBH-2035형으로 12인치 90°편향(310KGB31)의 브라운관을 장착한 소비전력 35와트로 총량은 7·8kg이다. 이번에 컴퓨터를 도입함에 따라 동문신상기록 전산화이외에도 사무국의 각종 사무처리가 전산화되었다.

뜨거운 民主化 투쟁

民主化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뜨겁았던 1987년에는 東國의 교수, 학생, 동문들도 民主化투쟁에 적극 가담하여 선조적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母校 재학생들은 6월투쟁중에 적극 참여했으며, 대통령선거기간동안에는 「군정종식을 위한 선거대책본부」 「공정선거감시단」 등을 구성하여 활동했다. 또한 母校교수 14명은 지난 5월8일 民主化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으며, 일부동문들은 지난 12월12일 民主門會를 조직하기도 했다.

근海詩碑 건립

민족의 선각자이며 東國의 지식지 지주이자 본회 초대회장을 역임한 근海 韓龍震선사의 詩碑가 지난 10월28일 모교 봄비니동산에 세워졌다. 이 시비는 지난4월 교수15명과 학생대표5명으로 건립추진위원회의(위원장=吳國根교수)가 구성돼 4차례에 걸친 의의를 통해 총공사비 3천6백60만원용을 들여 제작한것이다. 한편 모교당국은 내년상반기중 동우탑 부근에 약 7백평규모(3천평수용능력)의 근海詩碑를 조성할 계획이다.

躍進1백주년을 향한 巨步를 내딛은 東國의 지난 87년을 돌아보며 모교와 본회에서 있었던 큰 크고작은 사건을 모아 『東國10대뉴스』로 꾸며보았다.

會費... 1년에 1만원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同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격려속에 지난2월 同窓會館 건립의 밑바탕이 될사무국 이전을 비롯, 컴퓨터도입으로 사무자동화를 이루는등 同窓會가 거듭 발전하고 있습니다.

同門여러분께서 내주시는 年會費는 동창회관건립과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등 東國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會費납부에 중문여러분의 밝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협조를 바랍니다

◇회비내역

- 一般會費... 1만원
- 理事會費... 5만원
- 常務理事... 20만원
- 단체회비... 회원수대로
- 해의동문회비... \$ 20
- 監事... 20만원
- 副會長... 50만원
- 會長... 100만원

◇납부안내

- ①은행지로이용 납부
- ②전화주시면 방문수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本會사무국(733-3991~3)으로 문의 바랍니다

東國大學校總同窓會 事務局

“서울프라자호텔을 불러주시시오”

서울프라자호텔 연회출장 서비스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에게 맡기고 손님처럼 즐기십시오.

이제, 가장나 회사에서의 각종 연회를 편리하고 풍요롭게 지르실 수 있습니다. 서울프라자호텔 연회출장 서비스는 소중한 모임용 더욱 만족스럽게 꾸며 드립니다. 작은 모임부터 큰 행사에 이르기까지 각종 모임의 계획과 준비를 저희에게 맡겨주시시오. 언제라도 전화하여 주시면 애산에 맞추어 신속하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서울프라자호텔을 불러주시시오.

* 출장 서비스가 번거로우신분은 완벽한 시설을 갖춘 프러자의 연회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예약문의: 전화 771-22 교환 7245-7249

서울프라자호텔

체신부 通信工事면허업체

卍宇 電子通信公社

TEL: 273-4048 (代)

- 각종 通信設備 유지 보수
- 각종 通信機器 제작 및 설치
- 전자식 자동교환기 및 키-폰
- FAX, TELEX, 인터폰, MDF설치
- 컴퓨터및 SOFTWARE 운영

대표 趙椿煥 (74경영)

중구 을지로4가 315-1 무량BD 510호

각 단위원會 송년행사

◇行大院동창회

行政大學院(회장=尹錫均·69행원·본회부회장) [창립20주년 기념 및 87동문의 밤] 이 지난 2일 하오 6시30분 李晉冠 母校總長, 金仁鴻 行大院長과 역대 내진장 및 교수, 張基樞 총무처장관, 尹錫均 회장 등 동문회원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외워호텔 禮堂로 룸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尹錫均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행정대학원 창립20주년을 맞아 그동안 본동문회의 발전에 공헌한 민병천 母校부총장 및 역대 원장 5명에게 사은패가 증정되었다.

국내 제일의 알찬 동문회로 발전시켜 서로의 결속을 더욱 굳건히 하는 한편 母校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동문회로 발전해 나아가는 한해가 되도록 다짐하기도 하였다.

행사에 이은 2부에서는 장기자랑과 행운상품 추첨등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연회가 배풀어져 동문들간의 우의를 다졌다.

◇經大院同窓會

경경대학원 동창회(회장=曹奎·외교장관대표)에서는 지난 13일 63대한성명빌딩 3층「코스모스 홀」에서 부부동반으로 1백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7송년의 밤」을 개최,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한편, 經大院 기수별 송년모임은 다음과 같이 각각 개최되었다.

- ▲12월 8일=동산회(동서울컨트라호텔) ▲17일=제28기(삼성동) ▲20일=제26기(서울가든) ▲21일=제21기(반도유스호텔) ▲26일=교우회

◇農經科 동창회

농경과 동창회(회장=柳五甲·東洋프로그래스 社長)에서는 「농경인의 밤」을 지난 18일 教授-在學生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겐스카우트 회관에서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앞서가는 학과 동창회로 발전키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직의 내실화와 함께 추배 제학생들의 학

(4층)에서 열려 한해를 마감하여 새해의 알찬 설계를 위한 한 회원간이 정을 다졌다.

◇한국수출입銀行

수출입은행 東友會(회장=洪鍾寬·76경원) 송년모임이 지난 18일 하오 7시 40여명이 가족동반으로 참석함가운데 조선호텔에서 있었다.

◇벽산(株)동문회

벽산(株)東友會(회장=韓世鎭·67행정·벽산금속(株) 사업본부장)에서는 지난 10일 7시부터 대화정(홍제동)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社會學科 동창회

사회학과 동창회(회장=金正

문권추첨, 장기자랑등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다음은 새로 선출된 임원들 명단이다.

- ▲회장=홍광희 ▲부회장=오봉섭, 유정성, 김성환 ▲감사=권영무, 한이수 ▲총무=정대진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東友會(회장=孫明浩·74식공) 87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회가 지난 9일 하오 서울가든(용산)에서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모임에서 차기 회장을 비롯 임원진개편이 다음과 같이 있었다.

- ▲회장=손명호 ▲총무=노종오

윤태문(영등포)에서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고 새 회장에 취임, 총무에 박민형 동문을 선출하는등 새 임원진을 구성하고 이어 여흥 순서를 갖고 친목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興國生命

흥국생명보험(株) 東友會(회장=柳國衛·64 商學·흥국생명보험(株) 총무이사)는 지난 19일 하오 6시 당산회관(당산동)에서 송년모임을 갖고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유지시키는 등, 각종 논의사항을 합의하고 이 날 참석한 50여명의 회원상호간의 건승을 다짐했다.

◇서울신탁은행

서울신탁銀行 東友會(회장=金春顯·58·경제·건지동지점장) 87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회 지난 29일 하오 7시 30여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흥화(명동)에서 열려 1년간 총회사무의 결산을 갖는 한편, 同門상호간의 친목도모의 시간을 가졌다.

◇해태제과(株)

해태제과(株) 동우회(회장=孫鎔勳·71食工·해태제과(주)개발실차장)는 지난 9일 하오 6시 한국관(여의도)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회장에 權仁元(71경원) 총무에 梁基樞(76경원) 동문을 선출하고 이어 여흥의 순서를 갖고 회원간의 우의를 다졌다.

◇城北 同門會

성북 同門會(회장=金光鎭·69경원·종년과 대표)는 87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회 행사를 지난 28일 하오 6시 종년과(돈암동)에서 개최했다.

회원 1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제3회 새 임원진을 선출하여 차기회장에 金光鎭(69경원·남양수산대표)를 선출했다.

이어 이어진 연회순서에서는 곽종추천과 장기자랑등을 통한 여흥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선출된 임원명단이다. ▲회장=金光鎭(69경원) ▲상임 부회장=김영일(63경원)

▲부회장=金元正(63경제), 나가인(69경원), 조광복(86경원), 박영호(71경원), 유재선(70경원) ▲총무·재무=유재선(70경원) ▲감사=권수영(63원화)



▲서로의 결속과 동국애를 나누는 연말 행사가 단 위동문회마다 활발히 열렸다.

구절을 돕기위한 장학기금조성 문제가 논의되었다.

◇한국투자신탁(株)

한국투자신탁(株)東友會(회장=鄭龍談·63 경제·同청량리지점장)송년회가 지난 10일 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래궁(여의도)에서 있어, 회원간의 유대감을 돈독히 하였다.

◇東綠會

東綠會(회장=柳根昌·49文學·주택협회회장)송년회가 80여명의 회원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일 하오 6시 서교호텔 그랜드 볼룸

1·유니컴대표)에서는 지난 29일 하오 7시 진교관에서 제7차 정기총회를 겸한 송년모임을 갖고 선후배간의 결속을 굳건히 하는 자리를 가졌다.

◇行大院30기同門會

행정대학원 30기 동문회 87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지난 4일 입진각(논현동)에서 개최하였다.

동문 30여명이 모인 이날 행사에서는 차기임원진을 선출시키고 새회장에 홍광희(경진실업株대표) 동문을 선출했다. 이어 이어진 여흥순서에서행

◇유한양행(株)

유한양행(株)東友會(회장 金正浩·71경제)에서는 지난 4일 하오 7시 명에회원을비롯한 회원 30여명이 대성관(대방동)에 모여 87년도 정기총회와 더불어 송년회를 갖고 회원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였다.

◇조선맥주(株)

조선맥주(株)東友會(회장=南金光·69상학·영입부장)는 송년모임을 지난 18일 하오 7시

동문 원고모집

本報에서는 東友會報 創刊 11周年을 맞이하여 本報를 全 東國인이 참여하는 대화의 광장이 되고자 동문여러분의 육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투고바랍니다.

◇원고 내용

- *隨筆.....15枚 내외
- *同窓會館建立에 대한 나의 의견.....15枚 내외
- *同窓會發展을 위한 나의 제언.....15枚 내외

◇제출처

서울 중구 관훈동 192-18 선화빌딩 12층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회보편집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사무국 편집실로 문의바람. 전화 733-3991~3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事務局

桃園꽃집

화환·꽃바구니
생화·신부화
화분·동·서양란

TEL : 266-4571
야간 : 602-4806

대표 辛承水 (72 경원)

서울·중구 충무로 4가125-1
진입빌딩 3층 42호

신용·진절·봉사

대한가축원 영진가축원



- 외국 수입견
- 교환사육상담
- 각종 견구 취급
- 애완견보양

대표 서영진 (61경제)

중구 충무로 5가 73-2
266-0731·267-0195
265-0086

東國人是 東國인이 경영하는 나라항공으로.



가장 저렴한 항공요금 (후불도 가능)

나라航空

대표이사 安重五 (65경문)

776-7895~7
752-4396~7
삼구빌딩1103호
(조선호텔후문 맞은편)

제15대 東國學院 理事長



黃鈺經 이사장

黃鈺經 (69형원·홍국사주지) 동문이 지난 23일 제15대 東國學院 理事長으로 선임, 29일취

임하였다.

지난 69년 母校 행정대리인을 거쳐 東國學院 監事職을 맡으면서부터 동국과 인연을 맺어온 黃鈺經은 그간 70년 명성여자중고등학교 교장, 71년부터 75년까지 동국대학교 理事를 지냈으며 大韓佛敎新聞社 社長職務代理, 중앙宗會 4, 5, 6대 宗會議員, 대한불교 조계종 總務院長 및 韓國佛敎 宗團協議會 會長을 역임하였다.

『世界속의 東國建設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이 나의 소명』이라고 굳은 의지를 피력하기도.

원장들을 역임하며 많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국토개발연구원 실장으로 있다. 본회 이사.

「초승달과 밤배」퍼내

정재봉 동문

정재봉(국문) 동문은 최근 「초승달과 밤배」(한국문학사)를 펴내 문단의 주목을 받고있다. 「작품 속의 어린 주인공」이라는 맑고 티없는 모습을 통해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잊혀져가고 있는 유보의적 안정을 전달하고있다. 이는 평을 듣고있으며 그동안 童心の 세계에 초점을 맞춘 많은 작품을 발표해왔다. 지년에는 등화집 「오세암」으로 「제14회 새작문학상」을 수상하기도.

출판문화상 수상

金泰俊 교수



金泰俊 교수는 최근 한국일보 사제정 「제 28회 한국 출판 문화상」에서 「사상사상」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총 3백6종 1천96권의 출판도서중에서 「상상」을 수상한 김 교수의 책은 「洪大容評傳」으로 학술적인 측면에서의 기여는 물론 일반독자들의 독서의욕도 함께 고취시킬 수 있도록 했는데 출판문화상이라는 역사상 한인들의 전모를 짚어내며 밝혀 당시를 조명하면서 일반독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쉬운표현으로 저술한 점을 높이평가받고있다.

은탑산업훈장 수상

朴俊亨 동문



朴俊亨 (63 경제) 동문은 이끄는 신라교역 주식회사의 「제 24회 무역의 날」을 맞아 5천만원 수출의 탑인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동회사는 수산·섬유·금융 및

첨단금융산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수출산업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대표이사인 차동문은 명화직물공업(주) 및 신라금속(주)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본회의 발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회 부회장.

기독교聯선 문편집국장

林茂本 동문

林茂本(66정외) 동문은 지난 1일자로 대한전기신보사 편집국장장에서 기독교연합신문 편집국

연희서비스社 설립

趙椿煥 동문

趙椿煥(74정경) 동문은 최근 바이킹 연희서비스를 설립했다.

태창직유(주) 현대해운(주) 두양상선(주) 등을 거쳐 현재 세우전기통신공사 대표로 있는 趙椿煥은 특히 동문가족 여러분들의 회갑연을 비롯한 크고 작은 연회에 보다 알찬 봉사를 다짐하고 있어 많은 부름을 원하고 있다고·본회

야구기자단원 방송캐스터, 해설자들 총 99명의 투표인단의 투표로 결정된 이날식상에는박진섭, 백인호등 같은 해태속의 동문들도 참석, 축하했는데 趙椿煥은 이번에도 지난 12월말 간스포츠포 연간 3상의 기능상을 수상하기도.

「신 한마리」퍼내

李惠仙 동문

李惠仙(80 국문) 동문은 최근 처녀시집인 「신 한마리」를 발간했다.

소선사람들을 만나는 날, 선 라도밤 빛물 한사발등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시집은 고조선, 가야의 할아버지로부터 전라도 땅 어공민 순자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실었던 감동으로 전달해 주고 있다. 趙椿煥은 지난 81년 시문학지에 徐廷柱 시인의 추천으로 데뷔했으며 현재 명성고교교사 및 대림공업전문대강사로서 「시인의 집」 동인이기도.



본인의 近況이나 동문들의 諸事 近況을 提이 주

장으로 영전했다. 林동문은 모교졸업 후 20여년간 언론계에 종사해왔는데 그동안 크리스천신문 편집국장, 복음신보 편집국장, 크리스천타임즈 편집국장장기 이사를 역임했다.

지점건설 準備委員長에

孔志浩 동문

孔志浩 (68농학·본회이사) 동문은 지난 1일자로 동서중(주) 중앙지점 건설 준비위원장으로 영전했다. 孔동문은 대한항공을 거쳐 同社에서 저축부장, 남대문지점장, 감사직장을 역임했다.

동지점은 88년 2월중 우양온천역 앞 프라자쇼핑빌딩 3층에 신설예정이며 孔동문은 동지역 동문들의 많은 협조를 비라고 있다.

중개사 사무소 개업

金炯敏 동문

金炯敏 (75 경제·공인중개사) 동문은 강남 남산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하고 부동산 상담과 관리, 중개업에 임하고 있다. 지난 86년까지 조선백주(주) 김희교장으로 재직하기도했던 金동문은 앞으로 특히 동문들의 부동산 문제 및 재산관리를 위한 상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연락처 (代) 549-8266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수상

金城漢, 韓大化 동문

지난 11일 「프로야구 제 6회 골든글러브상」 시상식에서金城漢(82체교) 동문이 1루수 부문에, 韓大化(83체교) 동문은 3루수 부문에서 각각 최다 득표로 상상을 수상했다.

移轉·開業

▲姜秉國(68농경) = 지난달 14일 「세교산업」개업.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오전리 79-11 (0343-52-8711)
▲宋在晚(69수학) = 지난달 14일 「한남체인」의 서울본부이전. 서울 강서구 가양동 110-2 (664-0765~9)

結婚

▲金在澤(48해전·인천지부교문) = 지난달 7일 고려대식당에서 차남 결혼
▲張根建(50사학·뉴욕지부교문) = 지난달 18일 해운관에서 차녀 결혼
▲朴永煥(62경제·본회이사) = 지난달 28일 유곡회관에서 4남 결혼

새주소를 알려주세요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주소입니다. 아직도 會報를 받아보지 못하시는 동문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꼭 보내 드리겠습니다.

- ▲林鎭澤(67商學) = 강동구 고덕동 고덕주공 APT
- ▲정혁(58經濟) =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 APT 1동1207호
- ▲崔煥吉(64經濟) =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 ▲張鎭奎(67醫藥)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신음7리 192-23
- ▲정재달(64經營) = 마포구 성산동 242-22
- ▲이한수(48文學) = 관악구 신림 2동 98-405
- ▲유영자(68英文) = 강남구 대치동 은마Apt. 19동 1410호
- ▲이광일(63經濟) =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 Apt. 81동 1501호
- ▲박종호(60정치) = 강남구 청담동 삼익Apt. 6동 901호
- ▲신규인(87經營) = 영등포구 여의도동31 문화방송 기획실 전산부
- ▲조미정(86복문) = 관악구 남원동602-177
- ▲이우홍(86경원) = 강동구 천호 1동 19-2 우성 APT. 7동605호
- ▲鄭仲鎭(77貿易) = 강남구 천호 1동19-2 우성 APT. 7동605호
- ▲윤강수(87가교) = 영등포동 4가 183, 17동 8반

근정포장을 수상

南時奭 동문



南時奭(58 정치) 동문은 지난 10월 제 5공국 경제부 문 유공자 포상식에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국제청조사국 심사 1과장, 강남대부서장, 광화문세무서장들을 역임해오면서 현재 국제청 재산세과장으로 있는 南동문은 본會이사로써 동창회의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역한국불교...」편역

宋堯仁 동문



이책에는 만해 한용운을 비롯, 소월, 서경주, 김달진씨 등 시인 96명의 불교적인 작품 총 1백 9편의 시와 시조가 수록되어 있는데 宋동문은 그밖에 우리나라의 소설, 에세이 등도 미국·필리핀·타이완 등에서 열역으로 출간하여 우리문화를 해외에 널리 알리는데 큰 공을 하고있다.

부동산학회장에 피선

吳鎭模 동문



吳鎭模 (61 법학) 동문은 지난 5월 영등 반도유스 호텔 에서 있었던 대한부동산학회 제 3차 정기총회에서 제 2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吳동문은 국토건설종합계획회의 회전문위원, 동 행정실장,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상임이사,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 차원위

최고 년 13.05%의 수익률 보장!

CP는 가장 높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금액·1,000만원 이상 만기·90일 이상

최대한 투자, 행복한 미래

대한투자금융

DAHAN INVESTMENT & FINANCE CORP

서울영등네거리 투지상점 777-4491
대 대표 771-06

現代公認仲介士 合同事務所

公認仲介士 金炯敏(75경원)

가장 안전하고 높은수익 **土地투자**

서울 강남구 신사동 579 광정빌딩 304호
代表 549-8266, 549-8264~7, 546-2882

新入生 3,710명 선발

合格者 발표 전체수석에 金鎮九군

88학년도 모교 新入生 합격자 발표가 지난31일 오전10시에 있었다.

총 3천 7백10명 (慶州캠퍼스 포함) 모집에 2만 1천 1백18명이 지원, 평균5.69대1의 경쟁률을 보인 이번 입시에서 전체수석은 의과대학의 이과환 지원, 4백85.7점 만점에 4백46.7점 (학력고사 3백1점)을 얻은 金鎮九 (慶州高) 군이 차지했으며 인문계 수석은 불교대학 불교학과 成在燮 (金泉高卒, 4백85.7점 만점에 4백32.7점 득점) 군이, 자연계 수석은 한의과대학 한의예과의 이우현 (大邱高, 4백85.7점 만점에 4백42.7점 득점) 군이 각각 차지했다.

이들 합격자들에 대한 예비소집은 1988년 1월 4일 오후 1시 서울·慶州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있으며, 합격자는 1월 7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 모교 경리과에 등록을 마쳐야한다.

한편 입학식은 서울캠퍼스가 3월 2일 오전 11시, 慶州캠퍼스는 3월 5일 오전 11시에 각 캠퍼스별로 있게되며 이에앞선 신입생 적응도가 각 단과대별로 있을 예정이다.

자재大學 파견유학생 총 8명 선발

모교당국은 지난10일 88년도 자재대학 파견 유학생선발고사 최종합격자 8명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 유학생의 공개선발시험



▲평균점수를 5.69대1을 보인 88학년도 新入生모집의 합격자발표가 지난31일 있었다. (사진은 합격자 발표장모습)

은 모교의 유학생과전사상 자유로 자재교부의 활상화와 아울러 선발의 경쟁회전 측면에서 의의가 컸다.

이번에 선발된 학생들은 1988년 3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파견되는데,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베젠스부르크대 ▲김국진 (독문 4) ▲봉현철 (87경영)
- 교마타와대 ▲김정숙 (교육 4) ▲이태자 (84인철)
- 다이쇼대 ▲윤석관 (인철 4)
- ▲나두자 (85불교)
- UCLA ▲김사연 (불교 4)
- ▲김현호 (85경제)

정보산업 大學院 초대학장 金泰弘교수

모교당국은 신설되는 정보산업대학원 초대원장에 李智冠총

장을 겸임발령하고 초대학감에는 金泰弘(무역과) 교수를 임명했다.

한편, 현대학원 교학주임에는 李炳天 학장직임을 이동발령했다.

體育特技者 총35명 스카우트

88학년도 母校체육특기자 신입생은 축구부 9명, 야구부 12명을 비롯한 6개부 총36명정도로 밝혀졌다.

母校체육선 발표에 의하면 축구부는 고교상비군출신의 천종철(부평고), 박종실(종대부고), 최진규(송실고)군등 9명을, 야구부는 청소년 대표출신의 투수 최성복(경복고), 노용근(세광고)군과 역시 청소년대표출진인 강타자 임성우(세광고)군등 12명을, 농구부는 87상비군출신인 장신센터 최광현(순신고·195cm), 장수원(홍익고·192cm)군등 6명을 스카우트했다.

체육특기자 신입생명단은 다음과 같다.

- ▲축구부—김귀선(문일고)이 창원 박종만 (인제공)천종철(부평고) 박종실(종대부고) 최진규 김성구 (송실고)
- ▲야구부—노용근 임성우 (세광고) 이재민 김광진(중앙고)이동수 (덕수상) 김효상(동대문상)가득열 (대전고)박영민(경기고) 최성복(경복고) 최경만(보성고) 김영진(광주일고) 오은성 (매병고)
- ▲농구부—최광현(순신고), 장수원, 이명준 (홍익고), 박우진 (광주고), 김수영(송도고), 김영일 (포항공)
- ▲태슬필름—김현 (강서고), 박영진, 신경만 (강일고), 소일수 (리라공)
- ▲복싱부—최성순, 김석현(서울체고), 조인주(리라공)
- ▲빙상부—성우성(경기고)

大學生 논문상

유만선·김태근 수상 전국학술진흥재단수제 제12회 전국대학생 연구논문 발표대회

장학금 수혜율 총 32.5% 5천37명에 16억2천만원 지급

母校 학생재에서는 87학년도 제 2학기 장학금 지급현황을 최종집계, 지난7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학기 장학금지급액은 5천377명에게 총 16억 1천 8백16만 2백50원이 지급돼 총수혜율 32.54%, 1인당지급액 32만 1천 2백54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장학금 가운데 교내장학금은 총 4천 3백68명에게 총 13억 8천 3백92만 2천500원 (경주캠퍼스=3억 4천 5백 1만 9천 7백50원) 이 지급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신입생장학금이 5백30명에게 2억 9천 8백 54만 9천 7백50원이 지급되어 가장 많았고 성적우수장학금이 1천 1백25명에게 2억 8천 9백 87만 9천 7백50원, 근로발 가사, 대역장학금이 9백 9명에게 2억 5천 5백1만 3천원, 총장및 공로장학금이 5백85명에게 1억 6천 1백 74만 3천 7백50원 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외장학금은 6백69명에게 2억 3천 4백19만 8천원이 지급되었다.

메인 컴퓨터 도입계약 母校生 전산교육 위해

母校당국은 지난11일 전산교육의 활성화및 행정전산화 확대를 목적으로 대형 메인컴퓨터(기종 CYBER930-31)도입

계약을 美國컨트롤메이타社와 체결했다.

이번 컴퓨터도입은 행정전산화사업과 아울러 올해부터 실시되는 컴퓨터교육과정에 따른 것으로 메인컴퓨터와 단말기(CRT) 1백96대를 오는 2월말까지 점차계산소및 각 강의동별로 설치한다.

母校당국은 컴퓨터 교육대상을 확대하는 자연계와 경상계(慶州캠퍼스 동일) 학생에 한해 실시하며, 점차 대상학생을 늘려나가 오는 90년도부터는母校생전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내년 학사일정 확정 등록 2월25일

모교 교무처는 88학년도 제 1학기 학사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 2월25일 등록을 시작으로 하는 제 1학기 학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 ▲ 2월25일: 졸업식, 등록식
- ▲ 3월 2일: 88학년도 입학식
- ▲ 3월 5일: 1학기특별시험
- ▲ 3월 9일~11일: 수강신청및 점정
- ▲ 4월18일~23일: 전공과목 중간고사
- ▲ 4월25일~30일: 기초교양과정중간고사
- ▲ 5월 8일: 개교82주년기념
- ▲ 6월 1일~3일: 2학기 수강신청
- ▲ 6월 8일~14일: 기초교양과정 기말고사
- ▲ 6월 15일~21일: 전공과목 기말고사
- ▲ 6월 22일~8월 24일: 하계방학

모교 교무처는 88학년도 제 1학기 학사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모교 在郷軍人會館 매입 李총장 서울市長과 원칙적합의

모교당국은 지난 1일자로 모교 해화문 앞 재향군인회관 건물 및 부지(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97~7 소재·대지면적 2,454평, 건물 631평)를 매입했다고 공식발표했다.

가 국내유일의 宗立大學으로 민족사학이기에 때문'이라 밝히고 '이것이 東國大의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공공계의 발전에도 기여할 바라고' 밝혔다.

이번 매입은 지난 6월초부터 모교당국이 이전공간의 매입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경주해 온 것이 결실을 보게된 것으로 서울시에서 보수하여 중구민회관 건립을 위해 사용기로 한 것을 우여곡절끝에 모교가 인수하게 된 것으로서 서울시측에서 건물의 매도를 위한 공식적인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서 모교 慶州캠퍼스 유만선(경제 4), 김호태(국문 4)군이 사회·인문분야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다.

대학생들의 학문연구분부를 위해 지난 9월 열린 이 발표회에서 사회과학분야의 유만선은「정주관공요합수의 추정」을 발표해 최우수상을, 인문분야의 김

군은「구지기에 나타난 구해고찰」을 발표 우수상을 각각 차지했다.

한편, 최우수상을 수상한 유군은 문교부장관상과 함께 장학금 1백만원을 수여받고 동계방학중 일본중 지방자치지역에 외연수기회를 부여받았다.

마이크로 자료실 개관

각종자료 영구보존화에 기여

母校 마이크로자료실 개관이 지난11월23일 李智冠총장을 비롯한 학·처·실장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도서관 2층에서 열렸다.

참고 정기간행물실내부에 개관된 이 마이크로자료실엔 美 3M社제품의 리더기와 리더판 리더기 3대를 갖춰 필요한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원활히 처리할수있게되었는데 국내의외 각종 정기간행물과 모교소장의 국보및 문화재 등의 귀중한 마이크로본화와 원본입수가 불가능한 자료들의 마이크로본화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전자계산화 실습이 영역필수과목으로 신설되며 외국어교육활성화방안에 따른 중·고급시사영어, 중·고급영어회화, 중·고급영어독해등의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추가된다.

한편, 새로 분리신설된 법학과는 졸업학점조정이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전자계산화실습 해당대학은 다음과 같다.

- ▲서울캠퍼스=이과, 경상, 농과, 공과, 사범(수학교육, 가정교육학과)대학
- ▲경주캠퍼스=자연과학, 상경대학

한국문학연구 3개소 연구지원비 지급발사

모교의 한국문학연구소, 공안행정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등 3개 연구소가 87년 대학부설 연구소 연구지원비 지급대상 연구소로 선정되었다.

모교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신라문화연구소를 포함한 4개 연구소가 문교부에 추천되어 이중 3개 연구소가 연구비 지급대상 연구소로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속의 東國 건설에 盡力

特別 인터뷰



▲제15대 東國學院 理事長으로 취임한 黃軫經理事은 本報와의 인터뷰를 통해 財團기능 활성화로 東國發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醫大 병원 설립이 급선무 財團 운영에 同門의 건수령

12월 23일 제83회 東國學院 이사회에서 제15대 東國學院 이사장에 선임, 20인 취임한 黃軫經(軫經) 이사장...

東國의 新도약을 제시하며 취임한 黃이사장은 本報 崔素嬌부장이 만나 東國의 청사진과 戊辰年 새해 韓國佛敎界의 巨木으로부터 德談을 들어본다.

崔부장-우선 취임을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7인同門의 대면치인 東友會報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黃이사장-감사합니다.母校와 東國家族들의 우의증진을 위해서 평소 많은 수고를 하고계신 鄭在哲회장님이하 總同窓會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崔-먼저 제15대 이사장으로서 庶任하신 것을 同窓會에서 축하드립니다. 東國學院 이사장으로서 맞는 戊辰年 새해에 대한 느낌이 남다른 것이라 생각됩니다. 理事長님이 맞는 새해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회-이사회에서 우리학교는 지난 1906년 불교계의 선각들이 百尺竿頭에 선 國運을 회복시키고자 教育求國의 기치 아래 시대선구자 양성을 목적으로 개교했습니다. 智慧의 體得, 慈悲의 實證, 不惑의 精進이라는 建學理想 아래 그동안 많은 인재를 길러내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무진년 새해를 맞아 全東國인이 뜻을 모아 東國發展에 가일층 전념할 때인 만큼 세계속의 東國을 건설하기위해 새로운 자세로 임할 생각입니다.

으로 압니다. 그동안의 東國을 진단하시고 처방을내리신다면... 이사장-지난 68년부터 東國學院이사, 감사와 재단산하 명성여자중·고등학교장등을 역임했습니다. 처음 재단에 몸담았을때와 비교하면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수확之感이 들짐 도입된다던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대학, 더 나은 재단이 되기위해서는 할일이 많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財團機能을 더욱 활성화하여 학교운영을 지원해야한다는 것이 평소의 東國願이며 앞으로 그것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崔-이사장님께서서는 東國발전을 위해 많은 구상을 갖고계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중 在任期間중 특히 역점을들 사 업은 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이사장-물론 東國中興을 위해서 보다 많은 일을 하고픈 욕심이 있지만 우선 서울에 韓方병원 분원과 의과대학부속병원을 설립하는데 주력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 병원설립문제는 앞으로 학교당국과 긴밀히 협의함과 동시에 동창회의 협조도 얻을 생각입니다.

崔-東國의 중흥을 위해서는 중단, 재단, 대학, 그리고 동창

회의 합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단과 동창회의 유대감향 및 협력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장-동국발전을 위한 전

반적인 계획안이 수립되면 단계중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들의 힘과 성원으로 大東國 건설에 박차를 가하려합니다. 그리고 재단운영에 있어서도 총

"戊辰年에도 더욱 아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희망찬 무진년새해를 맞아 첫 인사드립니다-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한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해동안 쉬임없는 成履을 이룩한 東國의 氣像을 기뻐하며 아울러 뜨거운 관심과 성원으로 본 東友會報을 아껴주신 동문독자여러분께 충심으로감사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동문여러분의 빛나는「눈」과 튼튼한「다리」로서의 입무로 더욱 충실한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된 행운 수두룩(?)

○...「和合과 精進을 다짐했던 근 잔치」[제16회 동국인의 밤]에도 예년못지않게

마음든든한 東國愛의 열기를 느낄수 있었음에...
행사이후 本會 사무국이 갑자기 비좁아진 사정(?)이



東國대同창학회동축이임 발생, 그 이유를 알아본 즉 행운상품 추첨시 행운을 차지한 동문들께서 아직도 상품을 찾가지지않은 결과라고. 아깝기 황송하으나 그같은 뜻은 본회에 기증의사를 타내십시오...오는 2월말까지

"부지확장, 雄飛東國에 화룡점정"

동창회에서 파견된 이사분들을 모시고 동문들의 학교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적극수렴하고자 합니다.

崔-韓國불교계의 어른으로서 평소 가지고 계시는 座右銘은 어떤 것인지요.

이사장 항상 남을 위해 사는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남을위해 사는 것이 바로 大乘精神이라고 생각합니다.

崔-새로운 이사장직의 중책을 맡으신데 대해 학생들과 학교발전에 관심을 갖는 많은 동문들의 기세가 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늘의 젊은이들 특히 학생들에게 꼭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사장-우리학교는 불교적인 人格陶冶를 목적으로, 智慧와 慈悲를 제1의 德目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학생들이 갈등을 겪고 있지만 먼 앞날을 내다보는 지혜와 선견지명으로 惻惟하고 행동해주시길 바라며 어떤 이유에서든지 젊은이는 희생되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崔-바쁘신 중에도 잠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사장-동창회의 발전이 學院發展의 礎石이되도록 동창회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도 상품을 찾가지지 않으실 경우 회사하신 것으로 알고 감사히 사용하셨으니 양지 않아주십시오.

캠퍼스확장으로 東國發展

○...모교가 캠퍼스 옆에 있는 재향군인회관 부지를 매입하여 비좁기만 하던 캠퍼스에 마침내 숲들이 트이게 됐다고.

그동안 날로 웅비하는 校勢에 비해 캠퍼스 확소란 것이 흠이었던 적이었는데, 이번 부지매입을 계기로 또한번 東國發展의 급자탐을 쌓은셈.

東同動수 한가지 더 욕심이 있다면 모교의 캠퍼스확장에 발맞추어 본회의 속원 사업인 회관건립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現代自動車 (株)
HYUNDAI

현대인이 선택하는 정상의 승용차!
"그린저" 판매개시

2,000CC 2,400CC 3,000CC

판매과장 : 柳在善 TEL 274-3103~7 (70동경·ROTC 8기) 야간 914-6584

대우자동차 (株)

'87신형 정통 고급승용차 탄생

로얄시리즈(뉴코·프린스·살롱·수퍼살롱) 윌드카 프랑시리즈(GSE·GTE·레이서)

TEL 540-4740 (직) (야간) 487-7539 판매과장 : 崔鉉石 (74연영)

강남구 논현동 88-7 (고려 B/D 1층)

■ 西德 博士 純正品
■ 原廠 節減
■ 엔진 출력 증가/수명 연장
■ 적용 차량
■ 현대·대우 全車種

BOSCH SUPER
Cu-Electro
Dura etatis

수입원: 洋陽商事 (대표: 沈載錄·65경영) TEL. (02) 213-1392/3107 아르터서비스 244

信一金屬센터 (株)

황동판·銅파이프·비철금속 일체

대표이사 金鍾葉 (84경원)

본사: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251-3 ☎ 266-6662, 265-3258
지점: 서울 동대문구 홍두동 255-58 ☎ 924-6662, 924-6363

世進家具工藝店

TEL: 736-7887, 2311

■ 가정용 가구 代表 金文煥 (64 정외)
■ 사무용 가구 서울 종로구 교남동 61-2
■ 혼례용 가구 (서대문-독립문 중간)

생일이면 떠오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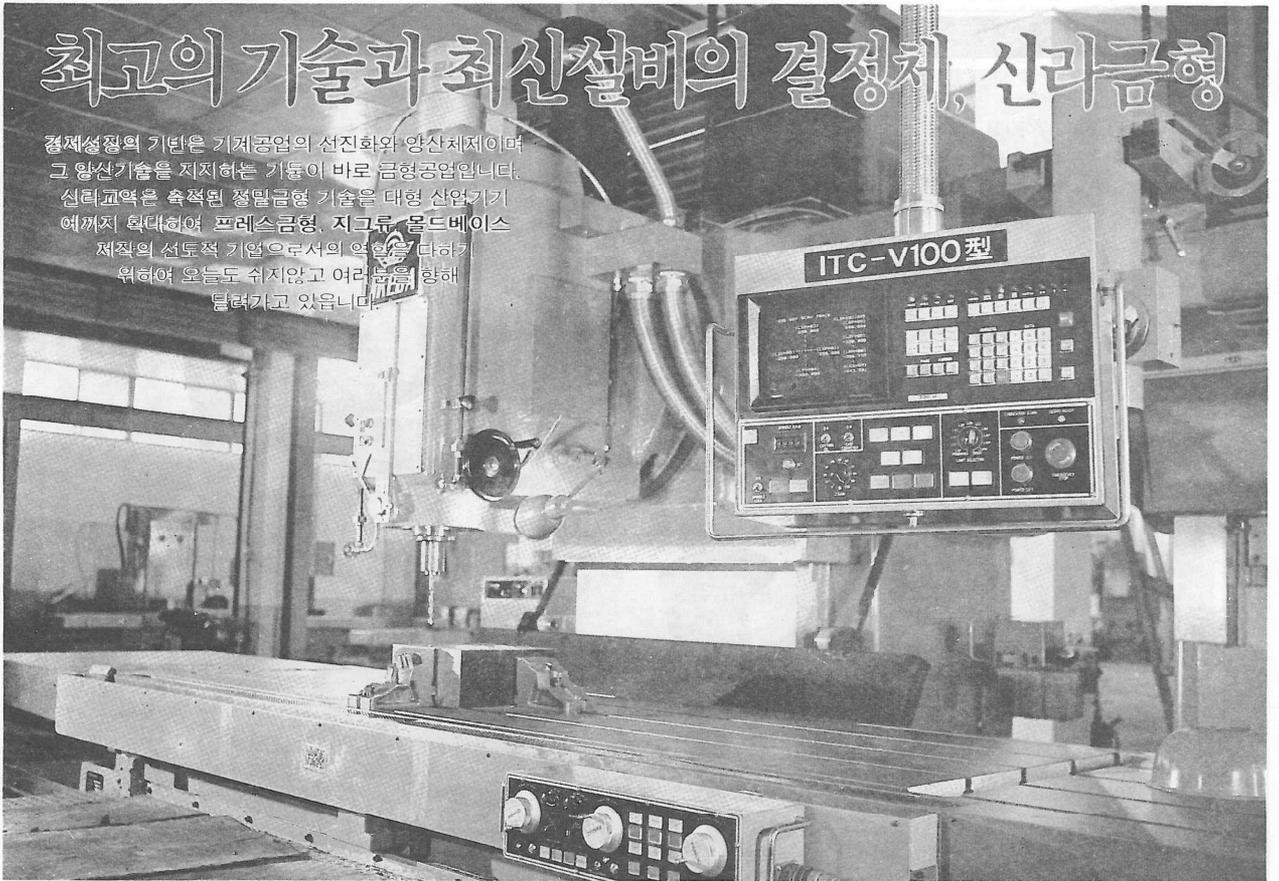
新羅명과

"실속있고 품위있는 선물을 원하십니까?"
소외자 상담실 863-4040

대표이사 홍평우 (70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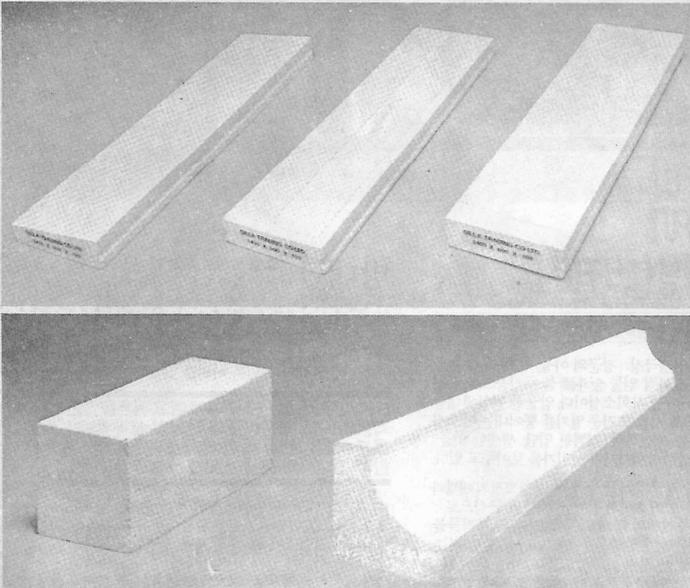
최고의 기술과 최신설비의 결정체, 신라금형

경제성장의 기반은 기계공업의 선진화와 양산체제이며
 그 양산기술을 저지하는 기술이 바로 금형공업입니다.
 신라금형은 축적된 정밀금형 기술을 대형 산업기기
 에까지 확대하여 프레스금형, 지그류, 몰드베이스
 제작의 선도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오늘도 쉬지않고 여러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첨단기술로 만든 신라 ALC

● 숨쉬는 최신소재 A.L.C ●



A.L.C란?

Autoclaved Lightweight Ceramics 로서
 규사, 석회, 시멘트를 주원료로하여 발포
 제를 첨가한 죽상태를 고온 고압 양생조
 에서 일정시간 양생시킨 다기능 건축소재
 입니다.

국내최초로 양산체제에 들어선 신라 ALC의 특징은

- 일반콘크리트의 1/4중량으로 고층건물의 경량화에
공헌
- 일반콘크리트의 약 10배에 달하는 단열, 내화성
- 수많은 독립기포형성으로 흡음, 차음성이 탁월
- 간단한 기구로도 가공과 조립이 용이



新羅交易株式會社

본 사: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93 52 (신라빌딩) TEL (02) 778 - 6161 ~ 9
 안성금형공장: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진사리 10 - 2 TEL (0333) 52 - 3121 - 5
 밀양ALC공장: 경남 밀양군 하남읍 파서리 950 TEL (0527) 4 - 2661 ~ 2

洪性裕 人生劇場

將軍의 아들들



“ 무장독립군으로
일본군을 대파한
백야 김좌진 장군.
그 빛나는 아버지의
위업에 도전하는
주먹항제 金斗漢의
끝없는 투쟁의 기록! ”

**朝鮮日報 연재소설,
홍성유 인생극장 <將軍의 아들!>
폭발적인 화제 속에 제5,6권 연속출간!**

홍성유 인생극장 <장군의 아들>은 우리시대의 신화적 인물 金斗漢을 주인공으로 흥미진진하게 펼쳐 나가는 사회소설이다. 암울한 현실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으로 시종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는 이 소설은 박진감 넘치는 사건 전개, 강력한 입담, 생생한 인물 묘사를 통해 소설의 참재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金佐鎭 장군의 아들 金斗漢은 임혁정의 배경과 배앗긴 땅에서 주먹계의 황제로 동국 日帝의 무리들을 한손에 쥐고 뒤흔들며 민족혼을 불태웠던 情義 넘치는 巨漢으로, 필적받는 자의 보호자로, 드디어는 政界의 거물로 격동의 한국 근대사에 우뚝섰던 우리 時代 가장 늠름한 대장부이며 大自由人이었다.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作家가 야심적으로 싸낸 이 작품 속의 특이한 인물들은 기상천외한 행위를 연출하면서 우리를 기막힌 인생무대로 초대한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드라마틱한 사건들은 우리가 걸어온 근대정치, 사회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알게우고 있다.

**日帝의 무리들을 한 주먹에 쥐고 뒤흔들었던
격동의 시대 풍운아들의 극적인 삶과 죽음을!
울분 속의 기행과 폭력, 뜨거운 애정과 의리!
한국 근대사의 생생한 모습 <將軍의 아들!>**

野史 에도 正史에도 기록되지 않은 술한 사람 들이 평을 강탈한 일본 야쿠자 그 거리를 배회하는 거렁뱅이 집대부들 민족 수난의 암흑기에 상처받은 자들과 함께 하려 자유와 정의의 편에서 눈부시게 활약했던 金斗漢이 비인간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긴 감동의 파문!

◆전6권/국판·각권 300면내외/각권 값 3,300원 ◆날권판에 ◆서점에 있습니다